



**미술관 관람안내**

관람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실완료는 5시반까지)

관람료 : 무료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관람 / 유의사항**

전시작품이나 진열장에 손대지 마십시오.

사진촬영 및 동영상 촬영은 하실 수 없습니다.

전시장 내에서는 음식물이나 음료를 드실 수 없습니다.

핸드폰은 진동모드로 전환해 주십시오.

전시장에서 큰소리를 내는 일이 없도록 관람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전시실 및 야외 모든시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림마을 관람안내**


상대포역사공원

上臺浦歷史公園

A.D. 405년에 왕인박사가 일본으로 떠났다고 전해지는 포구로 중국과 일본을 잇는 국제항구였다.



정원명석비

貞元銘石碑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통일 신라시대 매향비이다. 글자는 당연호인 정원 2년(786년 원성왕 2년)이 새겨져 있다.

문화재자료 제181호



국사암

國師岩

도선(道詵)국사(827-898)의 탄생설화 바위이다. 도선국사는 우리나라 음양 풍수설의 대가로 875년(헌강왕1)에 고려건국을 예언하였으며, 880년(헌강왕6)에 도갑사를 창건하였다.



국암사

國岩祠

고려 태조 왕건의 개국 공신인 별박사 최지몽(崔知夢)을 배향하는 사우이다.



죽림정  
竹林亭

현징(玄徵 1629-1702)이 참봉을 지내고 고향에 내려와 지은 정자로 정자의 원형은 내동리에 있던 취음정을 이축해 온 것이다.



간죽정·죽정서원  
間竹亭·竹亭書院

오한공 (五恨公) 박성건(朴成乾 1418~1487)이 장수현감을 지낸뒤 구림에 내려와 지은 정자이며, 후학을 양성한 곳이다.



회사정  
會社亭

대동계 집회 장소이며, 정유재란과 6.25 전쟁 소실로 몇차례 중수와 복원을 거쳤다.



대동계사  
大洞契舍

조선 명종 20년(1565)에 향약 구현을 위해 결성된 마을향약계 대동계는 동약계로서 그 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호남의 대표적 동약으로 동계 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다.

문화재자료 제198호



영암 구림리 요지  
靈岩 鳩林里 窯址

통일신라시대 유약 바른 도기를 최초로 생산한 가마터이다. 출토 도기는 돌대장식대호, 사각편병, 주판알 모양의 유병 등 일상생활용 도기이다.

사적 제338호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靈岩郡立河正雄美術館

동강 하정웅이 컬렉션한 미술품 3,036여점의 기증 계기로 세워진 공립미술관이다.

전남-제30호



동강 하정웅컬렉션실

영암도기박물관 3층

동강 하정웅이 컬렉션한 도자기를 전시하고 있다.



영암도기박물관

靈岩陶器博物館

사적 제338호 구림리 요지 출토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현대 도자상품 판매와 도예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이다.

전남-제10호



왕인박사유적지

王仁博士遺跡址

A.D. 5세기 초 일본에 천자문과 논어를 가지고가 아스카(飛鳥) 문화에 크게 공헌한 왕인박사를 현창한 유적지이다. 유적지에는 왕인박사 사당과 전시관, 탄생지, 문산재, 양사재, 책굴, 지침바위, 왕인석상 등이 있다.

지방기념물 제20호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靈巖 木材文化體驗場

새로운 건축문화로서 한옥건축의 현재와 미래를 체험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